

넘치도록 풍성하게 [딤후1:14]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입니다. 추석이 되면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가족과 친지들이 고향을 방문하여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고 풍성한 명절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추석이 주는 풍성함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명절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지만 성도는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던 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은 생을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달라진 까닭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바울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통해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삼위(三位)하나님의 풍성하게 하는 역사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추석 아침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가족의 모습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명절 아침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풍성한 은혜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소망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이기에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수도교회가 있어서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추석명절 예배 안내 : 17일(화) 오전 10시, 수도교회당(유튜브 실시간 송출)



추석 가정예배순서지

2024년 추석 가정예배

가족 중,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 원 인 도 자

이 시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 앙 고 백 다 합 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559장(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 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 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 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후렴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함께드리는기도 다 합 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 경 봉 독 디모데전서 1:14 말 은 이

[디모데전서 1: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 씀 넘치도록 풍성하게 인 도 자

찬 송 ... 314장(내 구주 예수를 더욱사랑) ... 다 합 께



1. 내 구주 예수를 더 욱사 랑 없 드려 비 는 말
2. 이 전엔 세상낙 기 났어 도 지 금내 기 뽐 온
3. 이 세상 떠날 때 찬 양하 고 승 절때 하 는 말

들 으 소 서 내 건정 소원이
오 직 예수 다 만내 비 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이 것 일 세 다 만내 비 는 말

더 욱사 랑 더 욱사 랑 아 멘

주 기 도 다 합 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축복합니다.